

#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하여

-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

李 鍾 學

(서라벌군사연구소장)

1. 머리말
2. 종래의 諸見解
3.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4. 맺음말

## 1. 머리말

7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대립의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백제의 攻勢에 의해 위기에 몰린 신라는 唐의 협력을 얻어, 660년 먼저 백제를 항복시켰다. 그러나 옛날부터 백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倭國은, 백제 부흥군의 활동을 지원하여 출병했으나, 663년 白江<sup>1)</sup>海戰

1) 『三國史記』에는 「白江」, 「白沙」로, 『日本書紀』에는 「白村江」, 『唐書』에는 「白江」, 「白江口」로 표기되어 있다.

에서 참패를 당했다.

羅唐聯合軍과 百濟復興·倭軍에 의한 白江·周留城<sup>2)</sup>을 무대로 하는 백제 최후의 결전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地名比定에 혼선이 있고, 그것이 현재의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定說이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古戰場의 位置比定의 究明에는 軍事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軍事史學的 研究方法<sup>3)</sup>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軍事理論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시인한 것은, 今西가 “나는 軍事에 무식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sup>4)</sup> 하는 정도이고, 많은 연구자들은 古戰場의 位置比定에 軍事理論의 필요성,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兵法에 의하면, 「싸우는 場所, 싸우는 日時를 적보다 먼저 알고 있다면, 가령 천리의 길을 원정해도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sup>5)</sup>고 했고, 또 나폴레옹은 「전쟁이란 위치의 업무이다」<sup>6)</sup>(War is a business of Positions)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戰略地點의 占有는 戰爭·作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새삼스럽게 戰例를 소개할 필요는 없으리라.

필자는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안 현지답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금년(2003) 6월초,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林 吉永戰史部長과 부안군청의 문화재전문위원 金鍾云 박사의 안내로 함께 조사·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결과이며, 軍事史的 研究方法에

2) 『三國史記』에는 「豆良尹城」, 「豆陵尹城」, 「豆率城」으로, 『日本書紀』에는 「州柔城」, 「疏留城」으로, 『唐書』에는 「周留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의 扶安縣에 의하면, •禹陳巖: 변산 꼭대기에 있다. 바위가 뭉은 둥글면서 높고 크고, 바라보면 눈(雪)빛이다. 바위 밑에 3개의 굴이 있는데…•[備考] 禹金城: 禹金巖 기슭에 있다. 둘레는 10리인데, 妙香寺가 그 안에 있다.

그 후, 「禹陳古城」, 「遇金山城」, 「位金岩山城」으로 불렸으나, 1994년 3월 발행 이후의 國立地理院 5만분의 1 지도에는 「周留山城」으로 기재되어 있다.

3) 拙著, 『韓國軍事史序說』(경주: 서라벌군사연구소, 1989), pp. 11-77.

4) 今西 龍, 1930「白江考」, 『百濟史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70), p. 358.

5) 孫武, 『孫子』(513 B.C.?) 虛實 第6.

6)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Westpoint, Connecticut: Greenword Press, 1911), p. 127.

의한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한 시도이다.

## 2. 종래의 諸見解

1) 安鼎福에 의하면 豆良尹城은 지금의 定山(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이고… 古沙比城은 지금 未詳이라 했다.<sup>7)</sup>

2)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周留城의 位置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금강 하류의 西岸에 있는 것 같다. 『舊唐書』에 後年 周留城을 함락시킨 모습을 기록하여 「劉仁軌…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仁軌遇扶餘豐之衆於白江之口, 四戰皆捷, 楚其舟四百艘, 賊衆大隕, 扶餘豐脫身而走」라 말하고, …文武王의 書에 「行至周留城下, 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 倭船千艘停在白沙, 百濟精騎岸上守船, 新羅驍騎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 遂卽降」이라 말한 것도 이를 가르킨다. 이러한 글에서 미루어보아, 周留城 함락의 원인은 白江의 패전에 있었으니, 따라서 周留城의 위치가 白江의 연안임을 알 수 있으리라. 白江은 濟紀에 伎伐浦의 別名이라 하니, 금강의 하구 또는 하구에서 멀지 않은 하류일 것이다. … 州柔가 周留이어야 하는 것은 『日本書紀』에 이것을 가지고 福信이 豐璋을 翁립하여 據守시킨 백제군의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白村江은 소위 白江으로서, 또한 그것이 금강의 하구 부근이라는 것은 일본군이 海路로 곧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白江의 패전에 의해 곧 함락한 州柔, 즉 周留城의 위치가 금강의 하류이어야 한다는 것, 『書紀』도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 … 또 文武王의 書에 「福信起於江西」라 했는데, 소위 江西의 근거지는 周留城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7) 安鼎福, 1778『東史綱目』第4上, 辛酉年.

… 나는 여전히 周留城을 가지고 韓山附近이라 하고, 또 이것을 豆良尹城이라 기록했다는 가정설을 유지한다.<sup>8)</sup>

3) 小田省吾에 의하면 白江, 이 江名은 종래 보통의 책에는 錦江 즉 熊津江의 하류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강의 江口는 『三國史記』에 熊津江口 또는 熊津江이라 하고, 白江의 河內는 별도로 白江口로 기록되어 있고, 결코 동일한 하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同書 周留城包圍의 條에 「劉仁軌 등 水軍 및 糧船을 이끌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거기서 陸軍과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唐의 수군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으로 향한 것이 틀림없다. 두 강은 분명히 각각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白江은 어느 강에 해당하는 것일까? 다행히 『三國史記』에 「白江 혹은 伎伐浦라 한다」고 되어 있다. … 생각건대, 周留城攻擊 때, 劉仁軌의 唐水軍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口, 즉 東津江口로 향했으리라. 따라서 나는 白江口, 즉 伎伐浦를 현재의 東津江口로 比定하고자 한다. … 이미 東津江口를 白江으로 시인한다면, 나는 지금의 扶安邑 혹은 그 부근의 古城址를 周留城으로 比定하는 것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9)</sup>

4) 池內 宏에 의하면, 이들 兩說을 보건대 津田氏가 「『通鑑』 및 『舊唐書』에 唐軍이 熊津江口에서 白江으로 향했다는 것은, 상류에서 下航했다는 뜻이며, 熊津附近을 熊津江이라 말하고, 河口附近을 白江이라 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小田氏는 「唐의 水軍은 熊津江口를 나와 白江으로 향한 것이 틀림없다. 두 강은 분명히 각각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해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면 나는 前說의 타당함을 믿는다.

8) 津田左右吉, 1913『百濟戰役地理考』, 『津田左右吉全集』 第11卷(東京: 岩波書店, 1964), pp. 172-173, p. 177.

9) 小田省吾, 1927『朝鮮史大系』(上世史)(東京: 原書房復刻版, 1975), pp. 194의 1-196.

前掲의 『舊唐書』百濟傳에 「道琛 등이 熊津江口에 兩柵을 세워 官軍을 막았다」고 하는 이상, 소위 熊津江은 금강의 하구를 가르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熊津江의 명칭은 금강의 하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熊津江의 하류에 대해 白江의 명칭도 있었던 것은, 龍朔 3年の 周留城攻擊에 관하여 百濟傳에 「劉仁軌…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이라 하고, 『通鑑』에는 「仁軌…自熊津入白江, 以會陸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안다. … 나는 周留城의 위치를 扶安邑 혹은 그 부근이라는 小田氏의 說을 부인하고, 津田氏의 견해에 따라 이名城의 古址를 금강 하류의 右岸 가까운 데서 찾자 한다.<sup>10)</sup>

5) 今西 龍에 의하면 周留城의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은 古阜附近에 있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龍朔 3年(663), 이것을 공격하는 데, 熊津都督府로부터 水陸路로 나누어, 水軍이 熊津江(지금의 錦江)을 내려와 白江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는 방법을 택한 것, 周留를 평정하자 곧 군대를 돌려 任存을 공격한 것을, 「南方已定, 廻軍北伐」이라 기록한 데서도 그 위치의 대강을 추측할 수 있다. … 그렇다면 古阜附近에 山城을 구한다면, 古阜에 가깝고 그 東南에 위치하는 斗升山城과 그 서쪽 약 16킬로미터에 있는 遇金岩山城이다. 이 斗升山이야말로 周留城이다.…<sup>11)</sup>

邊山の 동쪽 한 봉오리에 거대한 바위가 서 있으며, 아무데서나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바위가 곧 位金巖이며, 이 바위를 한 모퉁이로 해서 山城址가 있다. 즉 位金巖古山城이며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周留城이다.<sup>12)</sup>

만약 唐羅의 陸軍이 주로 扶安方面으로부터 周留城으로 향했다면, 白江은 小田教授가 比定한 것처럼 東津江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唐羅軍의 陸

10) 池內 宏, 1934「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東京: 吉川弘文館, 1960), pp. 113-115.

11) 今西 龍, 1930「周留城考」, 『百濟史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70), pp. 346-348.

12) 上掲書, pp. 513-514.

軍이 주로 古阜方面을 근거로 하여 周留城으로 향했다면, 前記의 두 江 외에 變山반도의 남쪽에 있는 菴浦內浦도 가해야 한다. … 나는 萬頃江·東津江을 白江의 후보지로 하는 외에, 이 內浦도 여기에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3)</sup>

6) 申采浩에 의하면, 唐將 蘇定方은 白江口의 伎伐浦에 이르러 數里 진 풀(泥海)에 행군할 수 없어 草木을 베어다가 바닥에 깔고 간신히 들어오는데 … 義直이 衆軍을 호령하여 격전하다가 죽으니 … 신라인이 義直의 죽은 곳을 이름하여 釣龍臺라 하니 … 白村江은 『海上雜錄』에 보인 바, 義直의 죽은 곳이라 함이 可하니라.<sup>14)</sup>

周留城(金庾信傳의 豆率城이니 今燕岐의 元帥山?)을 …<sup>15)</sup>

7) 李丙燾에 의하면, 福信·道琛 등은 … 任存城으로부터 南下하여 周留城(韓山)에 據하고 熊津江口(白江) 沿岸에 兩柵을 세워 …<sup>16)</sup>

周留城은 첫째 險高하다는 것과 또 泗泚城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 熊津江(錦江)口 부근에 있어 倭國과의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흔히들 말하는 바와 같이 이를 지금 舒川郡 韓山面의 乾芝山城에 比定하고 싶다.<sup>17)</sup>

이러한 견해는 그 후 李弘植,<sup>18)</sup> 李基白,<sup>19)</sup> 李基東,<sup>20)</sup> 鄭孝雲,<sup>21)</sup> 金昌錫<sup>22)</sup> 등에 의해 수용되었다.

13) 上揭書, pp. 357-359.

14) 申采浩, 1931 『朝鮮上古史』(서울: 鐘路書店, 1948), p. 354.

15) 上揭書, p. 359.

16) 李丙燾, 『韓國史』(古代篇)(서울: 乙酉文化社, 1959), p. 514.

17)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서울: 乙酉文化社, 1983, 4版), p. 429.

1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서울: 知文閣, 1963)(上), p. 558 및 (下) p. 1455.

19)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67), pp. 86-87.

20) 李基東, 『百濟史研究』(서울: 一潮閣, 1996), p. 35.

21) 鄭孝雲, 「七世紀代의 韓日關係의 研究-白江口戰에의 倭軍派遣 動機를 中心으로-」(下), 『考古歷史學志』 第7輯,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1, pp. 219-220.

8) 全榮來에 의하면, 周留城은 沿岸地方인 白江口에 伎伐浦 海岸이 있고, 이 일대에 古沙比城, 避城 등이 서로 이웃하고 있다고 前提하고, 기벌포를 백제의 皆火縣으로 후의 扶寧地方으로 보아, 古沙比城은 古沙夫里로 現 古阜地方이고, 白村 곧 白江은 百濟 所良買縣인 現 扶安郡 白山面 一帶이며, 避城은 百濟 碧骨郡으로 現 金堤地方이라 하여, 周留城(豆良尹城)의 위치를 現 苗浦灣을 거느린 扶安郡 上西面に 있는 位金岩山城과 그 주변에 比定하였다.<sup>23)</sup>

9) 盧道陽에 의하면, 周留城이란 地名은 661년대에는 지금의 忠南 靑陽郡 定山面の 豆陵尹城을 지칭하였고, 662년대에는 支羅城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는 663년 8월에 唐羅軍에게 함락된 백제부흥군의 최후의 근거지 周留城을 말한다. 이 周留城의 위치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에 있는 位金岩山城으로 比定한다. 白江·伎伐浦·白江口를 지금의 금강의 하류로 보는 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日本書紀』의 「白村」 및 「白村江」과는 서로 확실히 다르며, 또 「白村江」은 扶安郡의 西部를 흐르는 「斗浦川」이라 주장했다.<sup>24)</sup>

10) 金在鵬에 의하면,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疏留城을 周留城으로 보고, 이의 기록을 주안점으로 하여, 이 周留城(疏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唐人들이 그들의 당시의 근거지인 泗泚, 熊津으로부터 北上하여 高句麗 南界를 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신라가 서쪽에 있는 城에 物資를 수송할 수 없었다고 보아, 安城川을 白江 또는 白村江으로 보고 安城川 河口인 白石浦를 白村으로 파악하여, 周留城을 全義地區一帶에 比定하고 豆率城을 道薩城의 異稱이라 하여, 高麗山城에 比定하였다.<sup>25)</sup>

22) 金昌錫, 「唐의 東北亞戰略과 三國의 對應」, 『軍史』 第47號,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p. 252.

23) 全榮來, 「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1976, p. 65.

24) 盧道陽, 「百濟 周留城考」, 『明知大論文集』 12輯, 1979~1980, pp. 26-33.

25) 金在鵬, 「全義 周留城 考證」, 1980, pp. 17-18, pp. 30-36.

『日本書紀』에 전하는 白村江은 安城川 河口에 위치한 白石浦이며, 白村江으로 表記하고 『日本書紀』에서 <ハクスキのエ>로 읽는 것은 白石浦를 日本語의 音으로 읽고 뜻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ハクスキ>는 白石에 대한 日本人들의 발음이지만, <スキ>는 日本古語에서 <村>이었다. 그리고 <エ>는 江·浦를 의미하는 말이다.<sup>26)</sup>

11) 沈正輔에 의하면, 제2기 이후에는 부흥군의 중심 거점으로, 周留城이 任存城에 대신하여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周留城이 금강 하류에 위치하였으며 唐水軍의 進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필자의 연구로서는 韓山 乾芝山城說이 가장 유력시된다. 그리고 白江口, 즉 伎伐浦의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금강 하구로 比定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믿게 되었다.<sup>27)</sup>

12) 鈴木 治에 의하면, 白村江은 白江이라고도 하고, 公州를 흐르는 부근을 옛날에는 熊津江이라 했다. 금강의 중류이다. 조금 내려가면 웅진 다음에 수도가 된 扶餘가 있다. 옛날에는 泗泚라 했다. 이 부근에서부터 水流가 바위에 부딪쳐 흰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白馬江의 이름이 있다. 白馬江은 수직으로 남하한 후, 江景으로부터는 거의 直角으로 흐름을 바꾸어, 서해안을 향해 흘러 群山の 북쪽으로 빠진다. 이 사이의 40킬로, 이것이 금강의 하류, 즉 白村江 혹은 伎伐浦이다.<sup>28)</sup>

백제군은 秦田來津의 戰略에 따라 周留城을 근거지로 했다. …「周留城」이 어디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白村江 江口 北岸의 韓山에 比定된다.<sup>29)</sup>

13) 鬼頭清明에 의하면, 劉仁軌는… 水軍을 이끌고 熊津으로부터 하류의

26) 金在鵬, 『百濟周留城의 研究』, 1995, p. 24.

27) 沈正輔,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관한 研究』, 『百濟研究』 14輯, 1983, p. 178.

追記: 8)은 이 논문에서 재인용함.

28) 鈴木 治, 『白村江』(東京: 學生社, 1972), p. 37.

29) 上掲書, p. 50.

白江(錦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州柔城(지도에 의하면 韓山으로 比定되어 있음-필자)으로 향했던 것이다.<sup>30)</sup>

14) 小林惠子에 의하면, 伎伐浦=熊津江(錦江), 白江=牙山灣으로 추정하지만, 唐軍이 山東半島로부터 黃海橫斷의 最短水路를 택하여 牙山灣의 德物島에 도착, 德物島로부터 아산만 남쪽의 唐津附近에 상륙하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백제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 말할 수 있다.<sup>31)</sup>

15) 川崎 晃에 의하면, 8월 唐·新羅의 聯合軍은 부흥군의 거점인 周留城(州柔城·忠淸南道 錦江下流)에 水陸으로 압박했다. 금강 하류의 白村江(白江)에서 唐水軍과 日本水軍이 조우했으나 ...<sup>32)</sup>

필자는 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연구자의 견해가 엇갈리고 또 定說이 없는 原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가) 周留城·白江의 地名이 各國의 史書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머리 속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周留城은 『三國史記』에는 「豆良尹城」, 「豆陵尹城」, 「豆率城」으로, 『日本書紀』에는 「州柔城」, 「疏留城」으로, 『唐書』에는 「周留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同一한 史料(漢文)에 대한 연구자들의 相異한 이해·해석이다. 예컨대 『舊唐書』의 「劉仁軌... 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 同趨周留城」 등이다. 史料의 選擇·批判·解釋은 歷史學研究의 알파오메가(alpha and omega)인 동시에,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大家의 이해·해석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개인의 능력, 史料의 이해·해석방법 그리고 연구대상과 연구방

30) 鬼頭清明, 『白村江』(東京:教育社, 1981), p. 150.

31) 小林惠子, 『白村江の戦いと任申の亂』(東京:現代思潮新社, 1987), p. 75.

32) 川崎 晃, 「白村江の戦い」, 『日本古代史事典』(東京:大和書房, 1993), p. 266.

법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예컨대, 오늘날 日本과 韓國의 古代史學界에서는 津田左右吉의 學說이 主流을 형성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研究對象에 대한 方法論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다) 周留城과 白江의 위치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上述한 史料에 의해 모든 연구자들은 同意하고 있다. 그렇다면 史料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白江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周留城의 位置解明을 위한 先決問題라 하겠다」<sup>33)</sup>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필자는 周留城이 位置比定에 필요한 확실한 史料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

라) 周留城·白江이라는 古戰場의 位置比定을 究明함에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은 文獻史學的·考古學的·地理學的 그리고 音韻學的 研究方法 등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軍事史學的 研究方法, 즉 軍事理論과 歷史學을 통합한 학문으로써 군사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歷史學的方法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필자는 이 방법으로 문제의 究明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3.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한 考察

#### (1) 制海의 관점에서

海上勢力(sea power)과 制海(control of the sea)가 역사의 흐름이나 정치,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알려

33) 沈正輔, 前掲論文, p. 172.

져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미국 해군의 마한 大頡 (1840~1914)의名著『해상세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1890)이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가는 대체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다. 그들은 바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해상력이 커다란 諸問題에 있어서 깊고 절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 왔었다. …

여기서 말하는 넓은 뜻의 해상세력이란, 무력에 의한 해상 혹은 그 일부분을 지배하는 해상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通商 및 海運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평화적인 통상 및 해운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군의 함대가 자연스럽게 또 건전하게 태어나고, 그것이 함대의 건실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sup>34)</sup>

마한 大頡은 해상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서, ① 지리적 위치, ② 자연적 형태, ③ 영토의 범위, ④ 인구의 수, ⑤ 국민성, ⑥ 정부의 성격(국가의 여러 제도도 포함)을 다루며 상세하게 설명했으나,<sup>35)</sup> 制海에 관해서는 명확한 定義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임하여 自國이 필요로 하는 해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자국을 공격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海域을 자유롭게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진실로 해상을 관제했다 하여도, 制海란 전과 탐지기가 없는 시대에 있어서 적의 단독행동의 함선이나 작은 戰隊도 살며시 항구에 잠입 혹은 탈출할 수 없다거나, 긴 해안선상의 무방비의 지점에 대해 적을 괴롭히는 습격도 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질을 가진다. 어느 국가가

34)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awn and Company, 1890), Preface and p. 28.

35) 上揭書, pp. 29-89.

해상 병참선을 이용하여, 혹은 적에 대해 그 이용을 거부할 능력이 전반적인 전략의 견지에서 거의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制海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적의 위협에 의해 그 국가의 해상 병참선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혹은 적의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그 국가의 전략적 요구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制海를 상실했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制海를 획득하는 것이 해군의 사명이며 또 武力에 의해 해상 혹은 그 일부분을 지배하는 해상의 군사력, 즉 우세한 해군력을 확보·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制海를 획득할 것인가? 마한 大頌에 의하면, 전쟁에 있어서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적의 해군을 격멸하는 데 있다. 적은 散在하는 전략지점간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해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즉 적의 전략지점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격이다<sup>36)</sup>라고 말했다. 그가 만약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1832)을 읽었더라면, 해군의 주요 목표를 더 상세히 체계화했을 터인데.

唐의 수군이 바다를 건너왔을 때, 백제로서는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그 다음은 상륙군의 반수가 상륙했을 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며,<sup>37)</sup> 그 다음은 상륙군이 교두보를 설치하고, 전비를 갖춘 연후에 공격하는 것으로 이것은 최하책이다.

660년 6월, 13만의 唐軍이 德物島에 왔을 때, 太子 法敏은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蘇定方을 맞이했는데, 663년 8월 倭水軍이 白江에서 패배할 때까지 백제 수군이 전연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한 大頌의 해상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을 비교했을 때, 신라보다는 백제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격(⑥), 즉 백제 의자왕은 酒色에 빠져 수군의 육성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唐의 城山으로부터 신라의 德物島 그리고 熊津江(錦江)을 통하여

36)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p. 199.

37) 『孫子』行軍 第九에는 「令半濟而擊之利」라고 했다.

泗泚城(부여)에 이르는 당의 해상 병참선은 안전했으며, 또 唐軍의 制海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周留城이 熊津江口 左側의 韓山에, 혹은 아산만의 동남에 周留城(燕岐郡 全義面)이 소재한다면, 다음 史料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史料 1) 齊明 6年(660) 10月, 백제의 佐平 鬼室福信이 佐平 貴智를 보내, 唐의 포로 100여 인을 바쳤다. … 또 군사를 빌고 구원을 청하였다. 아올러 王子 余豊璋을 되돌려 줄 것을 청하였다. …(『日本書紀』 卷第26)

(史料 2) 7年(661) 8月, 前軍의 將軍 大花下 阿曇比羅夫連…들을 보내,

- 백제를 구하게 하였다. 무기와 식량도 보냈다.
- 9월, 小山下 秦造田來津을 보내 軍士 5,000을 거느리고,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호위를 하게 했다.

(史料 3) 天智 元年(662) 春正月, 백제의 佐平 鬼室福信에 화살 십만 추, 실 500근, 솜 1,000근, 피륙 1,000단, 다룬 가죽 1,000장, 종자용 벼 3,000석을 주었다.

- 3월, 百濟王(豊璋)에 피복 300端을 주었다. … 그래서 장군을 보내 周留城에 응거하게 하였다.
- 5월, 大將軍… 수군 170척을 거느려서, 豊璋 등을 百濟國에 보내고 칙하여, 豊璋에 그 위를 계승시켰다.
- 12월, 州柔(周留)에서 避城(金堤)으로 도읍하였다.  
天智 2年(663) 春2月, 신라인이 백제의 남부 四州를 불태우고 … 이때 避城은 적에게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거기에 있기가 어려워, 도로 州柔로 돌아왔다.
- 3월, 前軍 將軍 上毛野君稚子…를 보내, 27,000명을 거느리고 新羅를 치게 했다.
- 8월 27日, 日本의 수군 중 처음에 온 자와 大唐의 수군과 대전하여 일본이 저서 물러났다.  
28日, … 진을 굳건히 한 大唐의 군사를 나아가 쳤다. 大唐은 좌우에서 수군을 내어 협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관군이 패적하였다(『日本書紀』 卷第27).

당시의 周留城은 백제부흥군의 王城·作戰基地 그리고 倭로부터 兵員·戰略物資의 보급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3년 8월 白江海戰 때까지 唐水軍과의 충돌이 전연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周留城이 唐水軍의 制海圈外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리라. 필자는 처음부터 周留城의 韓山(乾芝山城)說에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 이유는 泗泚城으로부터 韓山까지는 한나절의 행군거리 내에 소재하고, 難攻不落의 지리적 특징도 없는데, 어떻게 3년간이나 버티고 있었을까? 軍事作戰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근 乾芝山城의 城壁斷面調査의 결과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축조로 보이며, 백제시대까지는 거슬러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韓山乾芝山城』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忠清南道 舒川郡, 2001年).

그렇다면 周留城의 位置는 唐水軍의 制海圈外의 어디일까? 663년 8월의 白江海戰과 周留城戰鬪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史料 4) 이에 孫仁師·劉仁願과 新羅王 金法敏은 육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劉仁軌 및 別帥 杜爽·扶餘隆은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하였다. 仁軌는 白江의 입구에서 扶餘豐의 무리들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적선 400척을 불태웠으며…(『舊唐書』百濟)

(史料 5) 龍朔 3年(663)에 총관 孫仁師가 군사를 거느리고 熊津府城을 來救할 때에 신라의 兵馬도 출동, 함께 가서 周留城下에 다다랐다. 이때 倭國의 船兵이 와서 백제를 도울 새, 倭船 1,000隻은 白沙<sup>38)</sup>에 停在하고 백제의 精騎는 岸上에서 그 선함을 수호했다. 신라의 날랜 騎兵이 唐의 先鋒이 되어 백제의 岸陣을 깨뜨리니, 周留城은 실망하

38) 白沙는 白江 근처의 모래사장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津江 하구와 연결되는 下西面의 모래사장은 짧지만 지금도 규사가 많아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희게 보인다. 『三國史記』의 白沙는 어디를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규사가 있는 모래사장은 扶安郡 下西面 長信里밖에 없다(卞麟錫, 『白江口戰爭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關係의 接點-白江·白江口의 歷史地理的 考察을 중심으로-』, 『東洋學』第24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4, p. 124).

여 드디어 곧 항복하였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키어 북쪽을 칠 새, 任存城만이 완강하게도 항복치 아니하므로…(『三國史記』新羅本紀 第7 文武王 11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劉仁軌는 …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陸軍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唐의 水軍은 熊津江을 나와 白江으로 갔다는 것이며,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小田省吾로서, 卓見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周留城의 위치와 방향은 作戰日誌를 조사하면 명백해지리라.

新羅軍과 唐軍은 熊津(公州)에서 육군의 연합군을 편성했으며, 663년 7월 17일에 출발하여 8월 13일에 豆率城(周留城)에 도착했고,<sup>39)</sup> 17일에 州柔(周留)에 와서 王城을 포위했다. 27일과 28일의 白村江의 海戰에서 倭水軍은 패배했고, 9월 7일 百濟의 州柔城(周留城)은 항복했다.<sup>40)</sup> 10월 21일부터 任存城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sup>41)</sup> 남쪽(周留城)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任存城)을 쳤다<sup>42)</sup>(南方已定, 廻軍北伐)고 했으니, 周留城은 남쪽에 소재하고, 公州로부터 26일간의 행군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全榮來는 周留城陷落 이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羅唐聯合軍은 9월 7일 周留城陷落後 10월 21일 任存城을 공격하기까지 자그마치 44일이 흘렀다. 扶安·周留城으로부터 大興까지는 444里(177.6km)라는 엄청난 거리이다. 燕岐로부터 大興까지는 公州를 거친다 해도 138里(55.2km)에 불과하다<sup>43)</sup>고. 이것은 金在鵬의 周留城의 燕岐說에 대한 반론이다.

39) 『三國史記』卷第42, 列傳第2(金庚信 中)

40) 『日本書紀』卷第27, 天智天皇 2年.

41) 『三國史記』新羅本紀 第6, 文武王 3年.

42) 上揭書,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43) 全榮來, 「周留城·白江戰鬪에 관한 研究」(全州: 2001), p. 12.

## (2) 作戰基地 또는 橋頭堡의 관점에서

전쟁의 준비·수행에 있어서 基地·根據地(base), 作戰基地(base of operation) 그리고 橋頭堡(beach-head)는 육·해군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이들의 기능은 동일하다. 기지는 진군·공격을 개시하고 또 사태가 불리한 경우에는 철수할 수 있는 자기소유의 영토이며, 이곳은 군대의 인적·물적 힘의 원천, 즉 병력, 무기와 장비, 보급품, 그리고 식량을 구비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신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하는 군대는, 작전기지 부근에 본국의 기지와 동일한 조건을 구비한 제2기지를 설치하고, 또 확실한 병참선(line of communication)에 의해 양편을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만약 이를 무시하면 패배하는 것이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중 솔로몬群島의 가달가달島 전투에서 일본군의 패배이다. 제17군의 百武中將 휘하 약 3만명의 장병 가운데, 적의 포화로 죽은 자는 약 5,000명, 굶어죽은 자는 약 15,000명, 약 10,000명만이 구출되었다.<sup>44)</sup>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작전에 대해 미국의 마한 大領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본국으로부터 먼 해역에서의 작전은, 다만 일반작전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쟁목적에 대해 유용한 지점을 곧 보유하고, 또는 아직 보유치 않은 遠洋에서 실시하고, 또 그러한 지점을 보유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세적 행동을 취하며, 또한 적의 영토를 점령하고 혹은 적어도 이것을 관제하기를 바라는 해상원정이다. ... 먼저 합리적으로 안전한 본국 국경과, 적과 제해권을 다룰 수 있는 해군의 근본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다음에 취할 조치는 遠征目的의 달성상 가장 적절한 작전계획을 책정하는 일이다. 작전계획에 있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基地(base), 目

44) 今村 均, 『私記・一軍六十年の哀歡』(東京:芙蓉書房, 1971), p. 413.

標(objection), 그리고 作戰線(line of operation)이라는 모든 작전에 존재하는 세 가지이다.<sup>45)</sup>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渡海上陸作戰에 있어서 교두보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전쟁목적, 군사목표, 작전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또 작전의 성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文獻史料에 의하면, 唐軍의 교두보는 白江(伎伐浦)이지만, 거기는 현재의 어디일까?

(史料 6) 600년 백제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蘇定方은 城山(中國山東省)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口에 이르렀다. 적병은 강을 따라 진을 치고 있으니, 定方은 동쪽 강기슭으로 올라 산 위에 진을 치고 이와 싸워 크게 이겼다. 돛을 달고 바다를 덮으며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니 적병은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어갔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 도성 밖 20여 리를 남기고 적은 온 힘을 기울여 막았으나, 크게 이겨 이를 물리치고 만여 명을 사로잡았다(『舊唐書』列傳 蘇定方).

上述한 史料에 의해, 定方은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城山으로부터 곧바로 熊津江口로 상륙하여 적병을 패주시켰다고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 예컨대, 今西 龍에 의하면 德物島로부터 나와 錦江에 들어가 王都 扶餘로 향하는 唐水軍이 萬頃江 혹은 東津江에 들어가 다시 금강에 들어간다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sup>46)</sup> 小林惠子에 의하면, 熊津江을 錦江으로, 白江을 東津江으로 하는 說을 취한다면, 「百濟本紀」에 唐軍이 白江을 지났다는 것을 듣고 서둘러 熊津江을 방어하기 위해 出兵했다고 했는데, 唐軍이 德物島에 도착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熊津江(금강)을 지나서 東津江에 가서 다시 북상하여 熊津江에 들어간 것이 된다. 따라서 白江을 錦江의 남쪽에 比定

45)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pp. 204-205.

46) 今西 龍, 前掲書, p. 361.

하는 說은 모두 成立될 수 없다<sup>47)</sup>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온 상륙군이 최초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어디에 교두보를 설치할 것인가이며, 今西·小林 양인은 이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필자는 (史料 6)에는 定方이 德物島에서 太子 法敏을 만난 것과 교두보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한다.

(史料 7) 6월 21일, 王이 太子 法敏으로 兵船 100척을 이끌고 德物島에서 定方을 맞게 했다. 定方이 法敏에게 이르기를, “내가 7월 10일에 백제 남쪽에 이르러 大王의 군사와 만나 義慈의 都城을 무찔러 破하려 한다” 하며 … (『三國史記』 新羅紀 太宗王 7年)

蘇定方이 신라와 합류하는 날짜와 장소를 제시했다는 것에는 唐軍의 깊은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德物島에서 금강 하류까지는 일주일간이면 충분히 기습적 상륙작전의 실사가 가능한데, 13만의 병력과 병선 1,900척(鄉記에 의하면 병력 122,711명, 병선 1,900척, 『三國遺事』 卷第1 太宗 春秋公)이 20여 일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일까? 클라우제비츠는 그의名著 『戰爭論』(1832)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쟁에 의해 또한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 전쟁을 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로서 현명하다면 전쟁을 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질문의 첫째는 戰爭目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作戰目標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주요 사항에 의해 군사적 행동의 일체의 방향, 사용해야 할 수단의 범위, 전쟁을 수행하는 힘의 정도가 규정된다. 그리고 전쟁계획은 군사적 행동의 극히 사소한 말단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sup>48)</sup>

47) 小林惠子, 前掲書, p. 75.

48)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중심으로-』(경주: 서라벌 군사연구소, 2002), p. 237.

蘇定方は“義慈의 都城을 무찔러 破하려고 한다”고 함으로써 作戰目標은 명시했지만, 전쟁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戰爭目的은 명시하지 않았고 또 명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唐의 戰爭目的을 알지 못하고 작전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648년 신라가 백제의 침략에 의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金春秋(후의 武烈王)가 唐에 가서 원군의 파견을 요청했을 때, 唐太宗은 “짐이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대 신라가 백제·고구려에 꺾박되어 매양 그 침해를 입어 편안할 때가 없음을 애달피 여김이니, 山川土地는 나의 탐하는 바가 아니며…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sup>49)</sup>고 말했다.

그러나 定方は 백제를 무찌르고 백제왕 및 중신 93명과 병 2만명을 포로로 잡아 660년 9월 귀국하여 천자에게 포로를 바쳤다. 천자는 그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이내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더니, 定方이 “신라는 왕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父兄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고 하였다.<sup>50)</sup> 唐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는 각각 熊津都督府·安東都護府를 설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援軍으로 바다를 건너온 唐軍의 戰爭目的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마저도 토벌·정복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以夷制夷」의 計略에 의한 한반도의 정복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 신라와 고구려를 처음부터 싸우게 하여 서로 약화·피로케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목적은 달성하는 데 있었다. 定方의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행동과정에 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다음 史料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리라.

49) 『三國史記』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50) 『三國史記』列傳 第2 金庾信 中.

(史料 8) 蘇定方이 군사를 거느리고 城山(中國 山東省)에서 바다를 건너 德物島에 이르니, 신라왕이 김유신 장군을 보내어 정병 5만을 거느리고 백제 방면으로 가게 하였다. 義慈王은 이 정보를 듣고 群臣을 모아 攻·守勢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물었다.

佐平 義直은 말하기를 “唐兵은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물에 익숙지 못한 자는 배에서 반드시 피곤할 것이니, 처음 육지에 내려서 士氣가 안정치 못할 때에 급히 치면 가히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먼저 唐兵과 결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

佐平 興首가 말하기를, “唐兵은 수가 많고 軍律이 엄격하고… 만일 平原廣野에서 대전하면 승패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白江(혹은 伎伐浦)과 炭峴(혹은 沈峴)은 我國의 要路입니다. … 唐兵으로 하여금 白江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인으로 하여금 炭峴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大王은 방어를 굳게 하여 적의 軍糧이 다하고 士卒이 피로함을 기다려서 이를 습격한다면 반드시 적병을 깨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大臣들은 말하기를 “唐兵으로 하여금 白江에 들어와서 흐름에 따라 배를 整列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은 炭峴에 올라서 小路를 따라 말을 整列할 수 없게 한 다음, 이때를 당하여 군사를 놓아 치면, 마치 조롱 속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니, 의자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러던 중 唐·羅의 군사가 이미 白江과 炭峴을 거쳤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黃山(連山)에 나아가 신라병과 싸우게 하였는데, 네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병력이 적고 힘이 꺾이어 드디어 패하고 계백도 전사했다.

이에 여러 군사를 소집하여 熊津江口를 방어하기 위해 강변에 군사를 布陣케 했다. 定方이 江의 좌측 언덕으로 상륙하여 산에 올라 陣을 치니 我軍이 싸워서 大敗했다. … 定方이 步騎를 거느리고 都城으로 直向하여 30리되는 곳에 머물렀다. 我軍은 모든 병력을 다 하여 막았으나 또 패하여 死者가 만여 명이 되었다. 唐兵은 勝戰하

여 城으로 육박하니 王은 면하지 못할 것을 탄식하여 말하기를 …  
 (『三國史記』百濟本紀 第6 義慈王 20年)

蘇定方は 德物島로부터 직통으로 熊津江口의 左側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白江(伎伐浦)에 상륙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義慈王이 대신들을 모아 攻·守勢의 대책을 논의하여 끝날 무렵, 唐軍은 白江을, 신라군은 炭岷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자, 계백 장군을 먼저 黃山에 파견했다는 것은, 白江이 더 멀고 또 위협이 적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계백 장군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가 戰死한 후에 백제는 여러 군대를 모아서 熊津江口를 방위하기 위해 군대를 布陣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唐軍의 교두보는 白江이며, 熊津江과는 별도의 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663년 「劉仁軌는 …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으로부터 白江으로 나아가 육군과 합류하여 함께 周留城으로 향했다」(史料 4)는 기록을 보아도 명확하며, 白江은 周留城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만약 定方이 6월 21일 태자 법민과 만나, 일주일 후에 熊津江口에 교두보를 설치했다면 백제의 주력군과 최초로 전투를 해야만 했으며,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戰爭目的에도 위배되는 조치이리라. 따라서 白江은 泗泚城의 입장에서 본다면 熊津江口보다 더 먼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全榮來에 의하면, 蘇定方이 다소라도 군사 상식이 있는 장수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여 일간을 13만 대군을 만제한 1,900척의 대선단을 그대로 서해 바다에 명칭히 띄우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 ① 德物島에서 보급을 받았다는 치더라도 柴糧이 충분치 못하였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 식수·채소류 등을 20여 일간이나 저장·비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선상의 병사와 말은 佐平 義直이, “물에 익숙지 못한 자는 배 위에서 필시 피곤할 것”이라 한 대로 대부분이 승선에 익숙지 못하므로 하선 즉시 전투한다는 것은 어려움으로 반드시 상륙후 충분한 휴양과 육상

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 ③ 음력 6월 하순~7월 상순까지는 태풍 전선에 들어있으므로 폭풍우가 내습하는 기간에 한 척당 65명을 태울 정도의 소범선 1,900척을 그대로 해상에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sup>51)</sup>

고 주장했는데, 渡海上陸軍에 있어서 교두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主題의 연구자에 있어서 최초이며卓見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史料 6)의 「定方은 城山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에 이르렀다. …」(定方自城山濟海 至熊津江口)의 내용은, 定方이 城山으로부터 德物島에 와서 신라의 법민에게 7월 10일 王都의 남쪽에서 합류하자는 것을 통고하고, 거기서 白江에 들어가 교두보를 설치하고, 병사들의 휴양과 전투준비를 갖추고, 백제·신라의 주력군이 치열한 전투를 개시했으리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천천히 白江에서 熊津江에 도착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한다.

660년 9월 3일, 劉仁願이 唐兵 10,000명, 新羅兵 7,000명과 泗泚城을 지키게 되었다. 蘇定方은 백제왕과 왕족·중신 등의 포로를 이끌고 泗泚에서 배를 타고 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벌써 23일부터 백제의 부흥군이 泗泚城에 침입하여, 항복한 백제인들을 약탈해 데리고 가고자 했다. 留守役의 劉仁願은 唐軍과 新羅軍을 동원하여 그들을 격퇴했다. 당시 백제의 부흥군이 각 지역에서 거병을 했기 때문에 신라군은 그들을 진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史料 9) 661년 2월, 백제의 殘賊이 泗泚城을 공격하므로 王이 伊滄 品日을 大幢將軍에任하여 … 가서 泗泚城을 구원케 하였다. 3월 5일, 中路에 이르러, 品日이 휘하 군대를 나누어 먼저 가서 豆良尹城 南에서 陣營(作戰基地)할 곳을 살피게 하였던 바, 城中의 백제군이 羅陣의 정돈되지 아니함을 바라보고 갑자기 나와 기습을 가하매 아군은

51) 全榮來, 『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全州: 新亞出版社, 1996), pp. 30-31.

놀라 도주했다. 3월 12일, 大軍이 古沙比城外에 주둔하여 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三國史記』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이 내용(史料 9)은 泗泚城을 공격하는 백제부흥군의 소굴이며 근거지인 豆良尹城(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해 신라군은 그 城의 남쪽, 古沙比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공격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이다. “3월 5일 中路에 이르러”(至中路)에서 「中路」란 무슨 뜻인가? 百濟都城附近에 도착한 것을 中路에 至하다고 기록했고,<sup>52)</sup> 661년 당시 中部라고 하면 熊津城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어서 「中路에 至하다」라는 것도 「百濟都城(熊津城)附近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sup>53)</sup> 「中路」란 말이 어떤 루트를 뜻하는 게 아니고 「中方」이란 지방을 달리 적은 표현에 불과하고, 「中方古沙城」은 「國南二百六十里」라 한 거리상으로 보아도 지금 古阜가 틀림없다<sup>54)</sup>는 諸見解가 있다. 필자는 新羅의 主力軍이 3월 12일 古沙比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하여 豆良尹城을 공격했으나, 古沙比城이 古阜라면 「中路」는 古阜, 아니면 그 부근의 地名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작전기지는 전쟁목적·군사목표·작전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작전의 목적·목표는 豆良尹城의 타도·격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전기지는 가능한 한 豆良尹城의 주변, 즉 1일 행군거리인 20km<sup>55)</sup>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古沙比城의 위치를 究明한다는 것은 豆良尹城의 位置比定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52) 今西 龍, 前掲書, p. 311.

53) 金在鵬, 前掲論文, p. 12.

54) 全榮來, 『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 p. 70.

55) 步兵의 一日行軍距離는 부대의 규모, 휴대무기와 장비, 도로의 사정, 계절, 기상 및 장애물(도보로 건널 수 없는 河川)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란 어렵지만, 예컨대, 나폴레옹이 지휘한 프랑스軍의 우수성은 20만의 대병력이 하루 평균 20km씩 행군을 계속하여 800km의 유럽 大陸을 횡단한 그 기동력에서도 알 수 있었다. 李鍾學 外, 『綜合世界戰史』(서울: 博英社, 1968), p. 157.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인용한 羅紀(史料 9)를 보건대, 羅軍의 선봉이 豆良尹城 南에 屯營하니 城兵의 출격을 만나 먼저 패하고, 다음에 本軍이 古沙比城外에 오는 것을 기다려, 다시 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니, 豆良尹城은 古沙比城과 멀지 않은 지점에 있는 것 같다. … 古阜는 錦江의 남쪽에 있고, 지금은 全羅道에 속한다. 그런데 古沙比城을 古阜라 하고 豆良尹城을 定山이라 한다면, 두 城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羅紀가 나타내는 것과 같은 관계는 아닌 성 싶다.<sup>56)</sup>

池內 宏에 의하면, 신라의 先鋒軍 및 잇따라 古沙比城外에 주둔한 本軍의 작전목표인 豆良尹城은, 의심할 바 없이 「熊津江口の 兩柵」의 本城인 周留城 그것이다. … 新羅本紀의 古沙比城은 『通鑑』의 古泗에 해당하고, 『三國史記』(卷36) 地理志에 「古阜郡, 本百濟古眇夫里郡」으로 설명하고 있는 古眇夫里-夫리는 城邑을 뜻하는 百濟語-즉 扶安의 남쪽에 위치하는 지금의 古阜이다<sup>57)</sup>라고 했다.

필자도 古沙比城은 지금의 古阜라 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津田·池內 兩者의 견해는 豆良尹城(周留城)을 定山과 마찬가지로 금강 하류의 右岸(韓山地方)으로 비정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신라군의 作戰基地와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신라군이 周留城(韓山 혹은 定山)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먼 古阜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또 東津江·錦江은 도보로 도강할 수 없으니 배를 만들어 운반해서 강을 건너 공격했을 것인가?

周留城이 古阜(全北 井邑郡 古阜面)의 주변(20km 이내)에 있다는 것은 신라군의 作戰基地의 위치에 의해(史料 9) 수수께끼를 푸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56) 津田左右吉, 前掲書, p. 175.

57) 池內 宏, 前掲書, pp. 118-119.

## (3) 軍事地理의 觀點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 『軍事學의 理論體系』(1980)에 있어서, 軍事地理란 군사작전 및 전쟁 전체의 준비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서, 여러 국가, 전장, 각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자연적 그리고 군사적 조건의 현황을 연구하는 軍事學의 한 구성분야이다. 군사지리는 군사학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연구하고, 또 영토와 지형 등의 자연지리적 여러 조건이 전쟁 및 군사작전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정한다.<sup>58)</sup>

전쟁·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쟁술(전략과 전술)과 거의 같은 시기의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예컨대, 한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여 전투를 하고자 한다면, 적의 부대 혹은 요새의 위치와 그 지형, 접근로, 공격에 유리한 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孫子』에는 지형에 의한 행군·전투의 수행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 高地에 진을 치고 있는 적에게 정면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무릇 地形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곳이 있다.
  - 절간絶間 - 절벽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
  - 천정天井 -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 물이 꺾는 분지.
  - 천뢰天牢 -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 좁은 길이 하나만 있는 곳.
  - 천라天羅 - 초목이 뺏뺏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
  - 천함天陷 - 수렁이 된 늪지대로 통행이 어려운 곳.
  - 천극天隙 - 길고 좁으며, 땅은 울퉁불퉁한 곳.
- 대저, 地形이라는 것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조수단이다. 적군의 정세를 헤아리고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형이 험하고 좁고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는 것은 장수의 용병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알

58) 拙著, 『軍事論文選』(慶州: 徐羅伐軍事研究所, 1991), pp. 55-56.

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알지 못하고 싸우면 패배하는 것이다.<sup>59)</sup>

周留城과 白村江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한 作戰基地가 古阜에 위치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史料에 의해 地形·位置를 더 많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周留城이니, 이에 관련된 史料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史料 10) 이 州柔(周留)는 전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다. 농작할 땅이 아니다.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백성이 기근이 들 것이다. 避城(金堤)으로 옮기자. ... 지금 적이 함부로 오지 않는 까닭은 州柔가 산험에 가리어 있어서 모든 것이 방어하기에 적합하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낮은 곳에 있으면, 무엇으로 굳게 지켜 동요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겠는가(『日本書紀』卷第27, 天智天皇 元年).

(史料 11) 福信은 거짓 병을 칭하여 窟室에 숨고 扶餘豊이 병문안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왕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먼저 눈치챈 扶餘豊은 심복을 이끌고 복신을 끌어내어 살해했다(『舊唐書』百濟).

(史料 12) 변산은 봉오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이고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며 ... 우진암은 변산 꼭대기에 있는데, 암체는 둥글고 높고 거대하며 눈처럼 눈부시다. 바위 기슭에는 3곳의 굴이 있어 저마다 승려들이 기거하곤 한다. 바위 정박이는 평탄하여 올라가서 조망할 만하다(『東國輿地勝覽』扶安山川條).

(史料 13) 9월 7일(663), 百濟의 州柔城이 마침내 唐에 항복하였다. ... 드디어 전부터 枕服岐城에 있는 처자들에 가르쳐, 나라를 떠나갈 것을 알렸다. 11일, 牟婁를 출발, 13일 攄禮에 도착하였다. 24일에는 일본의 수군 및 佐平 余自信 ... 아울러 국민들이 攄禮城에 이르렀다. 다

59) 『孫子』九變 第8, 行軍 第9 그리고 地形 第10.

음 날 배가 떠나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다(『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

全榮來에 의하면, 周留城의 지리적 특징을 정리한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하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周留는 전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다. 이런 周留의 지리적 조건을 설명한 『東國輿地勝覽』扶安縣 山川條에는, 「변산은 봉오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이고,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며 ...」라고. 거기에다 周留城 안에는 窟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周留城의 위치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우진암은 변산의 꼭대기에 있는데, 바위 기슭에는 3곳의 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월 7일 周留城이 함락되고 탈출한 亡命軍이 牟婁에 도착한 것은 13일이다. 만약 周留城이 錦江以北에 소재한다면, 걸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금강·만경강 등이 있어서 적어도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리라<sup>60)</sup>고 했다.

上述한 내용은 지리적 조건에 의한 周留城(扶安郡 上西面 甘橋里)의 位置比定으로는 참으로 卓見이며, 필자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今西 龍은 만경강·동진강을 白江의 후보지로 하는 외에, 苗浦도 여기에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줄포 방면에는 커다란 강이 없다는 것이 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倭로부터 援軍이 周留城으로 가는 길은 苗浦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안내자 金鍾云 박사에게 질문했다. 그는 “지금은 아스팔트길이 되어 자동차로 가면 알지 못하지만, 苗浦~周留城의 길은 험해서 옛날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扶安~周留城의 길은 평탄하여 잘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대답이었다.

661년 3월 신라의 品日將軍이 古阜에 作戰基地를 설치하고 36일간 전투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은 地形, 즉 작전선이 험준한 산길(天牢)을 택한 것이

60) 全榮來, 『白村江から大野城まで』(全州: 新亞出版社, 1996), pp. 109-110, 118, 140-141.

주요 원인이라 생각했다. 만약 作戰基地를 扶安에다 설치했다면?

663년 8월 羅唐聯合軍의 육군은 扶安을 통하여 周留城으로 가서 포위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倭船이 白沙에 정박하고 백제의 기병대가 그 선단을 지키고 있는 것을 신라의 기병대가 岸邊의 진지를 격파했다(史料 5)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白江은 東津江으로 比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맺 음 말

663년 羅唐聯合軍과 百濟復興·倭軍의 국제적 결전장인 白江과 周留城의 位置比定의 문제가 연구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相異한 근본적 원인은, 軍事理論에 바탕을 둔 軍事史學의 研究方法을 도외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방법에 의해 究明을 시도해 보았다.

- ① 制海의 관점에서 中國 山東城의 城山으로부터 德物島, 남하하여 熊津江口를 통과하여 泗泚城의 海路는 唐의 해상 병참선이기 때문에, 周留城은 唐의 制海圈外, 즉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羅唐의 陸軍聯合軍은 663년 7월 17일 熊津(公州)을 출발하여 8월 13일 豆率城(周留城)에 도착·포위하여 9월 7일에 백제부흥군을 항복시켰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을 치다」(南方已定, 廻軍北伐)라고 함으로써 周留城은 남쪽에, 公州로부터 26일간의 행군거리 내에 소재한다.
- ② 作戰基地 또는 橋頭堡의 관점에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渡海上陸作戰에 있어서, 전쟁목적·군사목표·작전선을 고려하여 최초로 교두보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唐軍의 최초의 교두보는 白江(伎伐浦)이었다. 661년 3월 신라군은 豆良尹城(周留城)을 공격하기 위해 古沙比

城外에 作戰基地를 설치했다. 古沙比城은 古阜이기 때문에, 周留城은 古阜의 주변(20km 이내)에서 찾아야 한다.

- ③ 軍事地理의 관점에서 戰爭·軍事作戰의 준비·수행을 위해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周留城과 白江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古阜의 주변에서, 또 文獻史料에 의한 周留城의 지형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周留山城(扶安郡 上西面 甘橋里)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軍事史學的 研究方法에 의해 周留城은 周留山城으로, 白江은 東津江으로 位置比定을 하는 바이다.

(원고투고일 : 2004. 7. 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주류성, 백강, 군사사학적 방법, 작전기지, 해상 병참선

K C I

<ABSTRACT>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 An Approach Based on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

Lee, Chong-hak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as the sites of the decisive battle between the Combined Forces of Silla-Tang and the Baekje-Japan Armed Forces for revival there has not been a definitive opinion for several reasons. The main reason is, I suppose, that scholars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based on military theory.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argument on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Castle and the Baek River, employing the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First, in terms of control of the sea, Juryu Castle must have been outside of Tang's command of the sea, that is, south of it, because the sea route from Chengshan(城山) in China and Deokmul Island to the Ungjin River and Sabi Castle constitutes the Sea Line of Communications of Tang. The Combined Forces of Silla-Tang departed from Ungjin(Gongju) on July 17, 603 A.D., arrived at and laid siege to Juryu castle on August 13, and caused the Baekje Armed Forces for revival to surrender on September 7, 663, A.D. Therefore, Juryu Castle must have been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especially at the distance of 26-day march from Ungjin(Gongju).

Second, in terms of the base of operations, in March, 661, the Silla Forces set up a base of operations in order to attack Juryu Castle. Since the present site of old Sabi Castle turns out to be Gobu, Juryu Castle must have been located around Gobu.

Third, in terms of military geograph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graphical condition in preparing and waging a war or a military operations. Juryu Castle is only a little way from the Baek River and, judged from the written historical materials,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Juryu Castle are in accord with those of Juryu Mountain Fortress in Gangyo-ri, Sangseo-myeon, Buan-gun, Jeollabuk-do. Therefore, I make a comparative positioning of Juryu Mountain Fortress for Juryu Castle and of the Dongjin River for the Baek River.

Key Words: Juryu Castle, Baek River, Methodology for Military History, Base of Operations, Sea Line of Communications

K C I